

소네 덴만구 신사

학자이자 시인, 정치가이기도 했던 스가와라노 미치자네(845~903)는 지금은 학문의 신, 덴진(天神)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901년, 미치자네를 태운 배가 규슈로 향하던 도중 소네 근처에 정박했습니다. 이때 그는 덴만구 신사 서쪽에 있는 히카사 산에 올라 그곳에서 소나무 씨앗을 심고 규슈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씨앗은 자라 커다란 소나무가 되어 유명해졌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아들 아쓰시게가 소네를 방문해 부친을 모시는 신사를 건립했습니다. 신사 건물은 긴 세월을 견뎌낸 소란과 자연재해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지만, 현재도 같은 장소에 남아있으며 덴만구 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덴진으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시는 주요 신사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본전은 1870년에 재건된 것이지만, 1590년의 건축재도 남아있습니다. 현재의 하이덴(참배하기 위한 건물)은 1765년에 지어졌으며, 경내에는 미치자네와 관련이 있는 소의 동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미치자네는 소를 좋아해 이동 수단으로 소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유명해진 소나무 '소네의 소나무'는 1798년에 시들어버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못 및 정원과 마찬가지로 관광객을 위해 보존되었으며, 현재는 5대째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수 세기 동안 많은 시인이 이 신사를 찾아 시를 기증했습니다. 현재는 학업 성취를 기원하고 가을에 열리는 예대제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